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초[燭] - 촛불

초는 가연성(可燃性) 고체인 밀랍(蜜蠟)이나 기름을 원통형으로 성형하여 그 중심에 심지를 박아 불을 밝히는 등화구이다. 재료로는 밀랍·수지(獸脂)·목랍(木蠟)·종백랍(蟲白蠟)·경랍(鯨蠟)·파라핀(paraffin)랍·동물과 식물성 기름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었다. 초의 재료 중 납(蠟)은 19세기 스테아린(stearic acid)이나 파라핀 소재의 양초(洋燭)가 대량 생산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연료였다. 꿀벌의 집을 만드는 주성분으로 꿀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를 가열·압축하여 만드는 유지(油脂)를 가리키는 납은 양봉법(養蜂法)이 보급되기 전까지 주로 야생에서 채취하였으므로 매우 귀하였다. 봉밀(蜂蜜)에서 얻는 황색의 밀랍 외에 백랍종(白蠟蟲) 애벌레의 분비물에서 얻는 백랍이 있으며, 고래 기름에서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초에는 자초(刺燭)·홍대초(紅大燭)·포초(布燭)·용초(龍燭)·밀초(蜜燭)·화초(畫燭)·내점초(耐擘燭)·풍전초(風前燭)·만리초(萬里燭)·성초(聖燭)·잡초(雜燭)·마초(麻燭)·우지초(牛脂燭)·돈지초(豚脂燭)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언제부터 초가 쓰였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장식한 금동촛대가 남아 있고, 경주 안압지에서도 초 가위가 출토되어 당시의 초 사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불교와 유교가 각각 국가 정책의 바탕이 된 고려와 조선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자료가 남아 있다. 고려에서는 홍대초(紅大燭)와 용초(龍燭)가 사용되었고, 초가 귀해 햇불을 대용하게 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보인다. 조선 또한 밀초를 대신하여 관솔불(松炬)이나 기름 등잔(油燈)을 사용하도록 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다. 이렇게 초는 매우 귀한 등화구로서 일상 조명용 보다는 주로 의·제식용으로 사용되었고, 더러 궁궐이나 왕실에서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초가 귀하다보니 초에 켜는 촛불이 갖는 의미 또한 여러 상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적인 불로서 난방이나 조명을 얻기 보다는 고사(告祀)나 축원, 제사, 불공 등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되었다. 제의에서 향을 사르고 촛불을 켜는 일은 신불(神佛)이나 신령을 일깨우고 인간의 마음 속 염원을 환기시키는 상징의 빛으로 받아들여진다. 마을의 동계(洞祭)나 무당이 굿을 할 때 역시 반드시 촛불을 밝혀 축귀(逐鬼)와 정화의 기능을 한다.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촛불을 밝혀 주위의 악귀를 몰아내고 제장(祭場)을 정화시킨 후 신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촛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세속의 때를 태워 없애버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의 공간에 촛불을 켜으로써 부정(不淨)을 막아 신령을 감응케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낮에 치성을 드릴 때조차 촛불을 밝히고 있다. 제사 때 대문에 촛불을 밝혀 두어 조상신을 안내하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촛불 든 사람이 대문으로 앞서 나가 조상신의 가는 길을 밝혀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찰의 법당에 밝힌 촛불은 마음의 탐욕을 누르고 그 위에 불심을 심고자 하는 중생의 숙원을 담고 있다. 어두운 사바세계를 밝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광명의 빛으로서 촛불을 밝히는 것이다. 또 이사를 할 때 촛불을 켜 요강 안에 넣어 이사한 집의 큰 방 한가운데 두는 풍습에서는 유감주술(類感呪術)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비슷한 행위는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는 유감주술의 의미에서, 요강에 촛불을 넣는 행위는 집안의 재산이 불같이 일어날 것에 대한 주술적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때 이사한 집에 초를 선물했던 행위 또한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라고, 그 불빛처럼 집안의 운이 뻗어 나가 그 집이 다복(多福)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Leeum), 온양민속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1) 화초(畫燭) // 조선시대 // 밀지름 5.5cm, 높이 30cm // 국립민속박물관

사진3) 밀초(蜜燭) // 조선시대 // 밀지름 2.5~3cm, 높이 22.5~24.5cm // 온양민속박물관

사진5) 양초(洋燭) // 근대 // 너비 2cm, 높이 22cm // 국립민속박물관

내외에게 존호(尊號)를 올린 것을 기념하여 자경전(慈慶殿)에서 배문 진작례(進爵禮)를 정리한 의궤(儀軌)

사진7) 금동수정감장대(金銅水晶嵌裝燭臺) // 통일신라 8~10세기 // 너비 28cm, 높이 36.8cm // 삼성미술관 리움(Leeum) // 국보 174호

사진8) 금동초심지가귀(金銅燭狀) // 통일신라 // 길이 25.5cm // 국립경주박물관

사진2) 밀초(蜜燭) // 조선시대 // 밀지름 2.5cm, 높이 23cm // 국립민속박물관

사진4) 밀초(蜜燭) // 조선시대 // 너비 2.5~3cm, 높이 9.5~13.1cm // 국립민속박물관

사진6) 《정례의궤(整禮儀軌)》 가운데 초와 촛대를 설명한 그림 // 순조(純祖:1790-1834)